

전 가 동 향

전선조합, 배전용 66kV케이블 색상 통일

배전용으로 쓰이는 고압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66kV 급)의 색상이 흑색, 백색, 적색 등 3색으로 통일돼 사용된다.

전선공업협동조합(이사장 최병철)은 19일 그동안 주문자 및 한전 등 수요기관의 희망에 따라 여러 가지 색깔로 피복해 왔던 고압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 색상을 흑·백·적색 등 세가지색만 사용기로 확정했다.

전선조합은 최근 소비자들의 사용상 혼란을 막기 위해 관련업체에 의견을 수렴한 결과, 업체 전체가 흑·백·적

으로 통일하지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준형 전선조합 품질관리 과장은 "66kV급 배전용 케이블은 지금까지 수요자가 주문 또는 선택하는 사양에 따라 다양한 색상으로 사용돼 와 시공 등 사용상의 혼란을 가져온 게 사실"이라며 "특히 이번 색상 통일로 앞으로 제품 품질관리를 하는데도 용이하게 됐다"고 말했다.

수출입 송금결제 절반 육박

수출입결제 비중에서 송금방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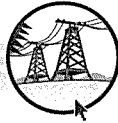
20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수출결제 중 송금방식은 46.7%를 차지해 지난 1999년 40.8%, 2000년 42.9%, 2001년 44.6%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반면 신용장(L/C) 및 D/A, D/P 방식의 비중은 매년 감소하면서 지난 1999년 각 31.1%, 23.7%에서 올 상반기 각각 24.2%, 17.2%로 나타났다. 수입에서도 송금방식이 지난 1999년 22.0%에서 올 상반기 41.6%로 두 배 이상 신장했으며 반대로 신용장 방식은 같은 기간동안 56.0%에서 44.5%로 송금과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신용장 방식의 비중이 하락하는 원인

결제형태별 수출입 추이 (억달러, %)

구 분	1990	2000	2001	2002.1~6
수 출				
신용장	31.1	27.6	26.8	24.2
D/A, D/P	23.7	22.6	18.9	17.2
송 금	40.8	42.9	44.6	46.7
기 타	4.4	6.9	9.8	11.8
총 계	100.0	100.0	100.0	100.0
수 입				
신용장	56.0	54.3	50.0	44.5
D/A, D/P	13.1	10.2	8.5	7.7
송 금	22.0	28.5	35.3	41.6
기 타	8.9	7.0	6.2	6.2
총 계	100.0	100.0	100.0	100.0



전 가 동 향

은 복잡한 절차, 부대수수로 부담으로 신용장 방식의 메리트가 하락하고 반도체, 산업용전자, 가전 등에서 거래방식이 소량, 수시 주문형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대기업의 경우 해외 현지법인, 지사와의 거래 확대 등에서 신용장보다 송금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과기부, 3·4분기 신기술 인정 수여

과학기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주)케이티파워의 '수배전반 온라인 부하자료 수집시스템 및 변압기 터보 냉각 운전기술' 등 총 35개 기술을 2002년도 3·4분기 신기술(KT마크)로 최종 확정하고 4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기업대표와 기술개발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기술인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인정된 35개 기술을 분야별로 보면 전기전자분야가 (주)케이티파워의 '수배전반에서의 온라인 부하자료 수집시스템 및 변압기의 터보 냉각 운전기술' 등 11개로

가장 많았다. 기계분야는 삼성중공업(주)의 '후판 철 구조물의 수직맞대기 One-Run 용접기술' 등 8개, 화학·생명 분야는 (주)LG화학의 '고전압 전선용 특수 PVC' 등 7개, 소프트웨어분야는 (주)티컴넷의 '인터넷 STB용 미들웨어 및 응용 SW' 등 5개, 건설·환경분야는 코오롱건설(주)과 (주)코캣이 공동 개발한 '소각로 배기가스 중 질소 산화물 제거용 모더나이트 촉매' 등 3개사 신기술로 선정됐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22개, 대기업은 12개, 연구기관은 1개 기술이 선정됐다.

한전, 심야전력 전자식 스위치로 교체

한전은 겨울철 특정 시간대 집중되는 심야전력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9월과 10월 두 달 동안 기존 심야전력 고객의 기계식 타임 스위치를 1일 2회 개폐용 전자식 타임스위치로 교체하는 공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한전은 이번 심야전력용 전자식 타임스위치 교체 대상을 계약전력 25kW 이상 수용가 중 심야전력 사용량이 하루 평균 3시간에서 7시간인 수용가부터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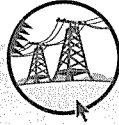
또 사업소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1~2시간을 사용하는 수용가도 포함하기로 했다.

한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전자식 타임스위치 교체공사가 끝나면 새벽 1시와 2시사이에 집중됐던 부하 105만kW

와 저녁 11시와 12 사이에 집중됐던 부하 70만kW를 분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겨울철 전력수급을 안정화시키고 송배전설비의 과부하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 배전처는 이달 중에 관련기자재를 배분하고 교체 공사를 시행해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한전은 지난해에도 심야전력 수용가의 기계식 타임스위치 6만 대를 1일 2회 개폐형 전자식 타임스위치로 교체해 242만kW의 부하를 분산하는 효과를 거뒀다.



전 가 동 향

남동발전, 연내 우선협상자 선정 - 지분34%매각 경영권 넘기기로

첫 민영화 대상 발전회사인 한국남동발전(주)의 새 주인이 연내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서울 삼성동 본사 이사회 회의실에서 제10차 이사회를 열고 '한국남동발전(주) 민영화 세부추진계획(안)'을 의결했다.

이 안에 따르면 정부와 한전은 연내에 우선 매각 대상자를 선정해 늦어도 내년 1월까지 매각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전은 10월 2일 투자의향서(LOI) 접수 공고를 내고, 10월 18일까지 접수를 마감한다. 또 10월 24일 입찰제외요청서(REP)를 발급하고, 2개월 가량 입찰자 기업 실사를 거친 후 12월 20일까지 입찰서를 접수하기로 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12월 27일경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했다.

정부와 한전은 1차적으로 지분 34% 매각을 통해 경영권을 넘기고, 이후 주식시장 상장을 통해 16~25%의 지분을 매각한 다음 다시 나머지 잔여 지분을 매각하는 등 모두 3단계에 걸쳐 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와 한전은 발전회사 민영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한전 홈페이지에 투자가 정보란을 신설해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로 했으며, 10월 2일에는 투자가 초청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 발전민영화 추진에 따른 남동발전 직원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이달말까지 인센티브 방안을 확정하고 내달까지 노조의 동의를 구할 방침이다.

한전, 물품구매 입찰보증금 면제범위 확대

한전은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의 경쟁 입찰시 면제해오던 송·변·배전 자재구매 입찰보증금을 앞으로는 추정가격에 관계없이 면제해주시기로 했다.

한전은 그동안 50억원 이상의 물품구매 경쟁 입찰에서는 투찰금액의 5%선에서 계약보증금이나 증권을 입찰보증금으로 받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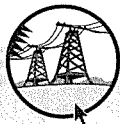
그러나 이번 조치로 입찰 참가 신청일 현재 입찰 참가자가 한전의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했거나 경쟁입찰 참가 자격 요건에 충족되면 추정가격에 관계없이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 받게 됐다.

입찰보증금은 경쟁 입찰시 계약체결을 담보하기 위해

입찰 참가자가 발주기관에 납부하는 보증금이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한전의 최근 3년간 총 3125건의 입찰 건수 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귀속된 사례가 2건에 불과해 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보증금 납부의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계약 체결시 업체로부터 지급각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업체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 입찰 참가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 가 동 향

신규원전 보조기기 구매 착수

총 1조5천억원 규모의 신고리원전 1·2호기, 신월성원전 1·2호기 보조기기 구매가 본격 착수됐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신규원전에 들어갈 차단기류, 배전반, GIS 등 전기분야 50여 개 품목에 대한 입찰공고를 내달 중에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신고리 1·2호기에 들어가는 GIS와 변압기는 최초로 765kV급 사양이 채택됨에 따라 국내 원전용으로는 최대 용량이 될 전망이다.

이번에는 또한 2개 호기를 한데 묶어 발주하던 기존 발주방식과 달리 4개 호기를 동시에 발주함에 따라 품목별 계약금액이 크게 상향된다.

이에 따라 전기제조업체는 물론 기자재 공급업체의 수주전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수원은 지난 8월 6일 신고리 1·2호기 수증배수펌프 구매계약을 엘도LG펌프(주)와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총 45개 품목에 대한 구매절차를 밟고 있다.

발주 품목은 현재 기계·건설분야 기자재가 주종이며 전기분야의 50여개 품목은 오는 10월중에 본격 발주 된다.

한수원은 앞으로 2007년 말까지 총 207개 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속적으로 발주·구매할 계획이며 금액으로는 총 1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분야 구매 품목은 총 4천억원에 이른다.

이와 관련 한수원 관계자는 “이번 보조기기 구매는 신고리 1·2호기 품목과 신월성 1·2호기 품목을 동시에 발주함으로써 관련업체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전의 보조기기는 원자로, 증기발생기, 가압기, 터빈, 발전기 등 핵심 주기기를 제외한 모든 기자재를 말한다.

한수원은 신고리 1·2호기를 2009년 9월, 신월성 1·2호기를 2010년 9월 각각 준공할 예정이며 주기기 공급계

고리 2호기·월성 1호기, 주변압기 내년 교체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원전 주변압기 교체공사를 고리원전 1호기에 이어 월성원전 1호기와 고리원전 2호기에 대해서도 시행한다.

한수원은 이를 위해 고리 2호기 주변압기 공급업체를 빠르면 9월 말 선정할 계획이다.

한수원은 또 월성 1호기 주변압기 공급업체로 선정된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오는 11월 말 신형 주변압기를 납품 받는다.

월성 1호기 신형 주변압기는 840MVA급으로 내년 2월, 고리 2호기 주변압기는 790MVA급으로 내년 10월 각각 교체될 예정이다.

한수원은 지난 16일 고리 1호기 주변압기 교체공사를 착수, 내달 초신형 주변압기를 가동할 계획이다.

한편 원전 주변압기는 송전선로와 연결된 원전 최말단 계통설비로서 원전에서 생산된 전력을 송전에 알맞도록 송입하는 기능을 담당한다.